

전북도 '어촌 살리기' 입체적 추진

특화자원 산업화 255억원 투입 관광·레저·여가공간 조성 등 콘텐츠 발굴

전북도는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정체된 어촌에 어촌이야기를 입히고,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공간 조성 등 새로운 콘텐츠 발굴로 체험관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어촌관광자원을 산업화하여 어촌마을을 활성화해 해양수산업 채도업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어촌특화자원 산업화에 255억원을 투자 어촌 이야기 길 조성,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2종), 어촌체험마을 활성화(2종), 어촌 특화역량강화, 고군산군도 어촌관광활성화(2종), 갯벌식물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어촌 이야기 길 조성은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산생물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전망대 및 캐릭터 포토존 설치, 벽화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고창 만돌마을, 부안 대리·전막마을)가 추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어촌마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은 어촌 지역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어촌주민이

주도하는 특화사업 계획에 따라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여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창 두어마을에서 가공공장, 푸드마켓, 식당 건립과 갯벌생태·새우양식장·염전 체험 등 각종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위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살기 좋은 어촌공간 조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업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복지공간 조성, 산책로, 어민회관 등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해안선 원터정비·위험담 주변 정비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인프라가 올해 내에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거쳐 선정했으나, 작년 8월 19일 어촌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올해에 처음으로 2018년 신규사업을 공모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전북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고창군 만돌권역'이, 마

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는 '부안군 대리·전막마을'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 만돌권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생태숲, 만돌 건강방, 5계절 복합생태공간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 로컬푸드 체험장, 수산식품 가공공장 리모델링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며, 부안군 대리·전막마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생태공원, ICT 연계 원격의료 진료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전통기양주관, 복합체험관광센터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상사화단지 조성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과 체험장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체험객의 쾌적한 체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갯벌버스 교체 및 체험장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어촌마을이 자체 소득사업을 운영해 어업의 소득 증

대가 가능하고 상형식 자율적 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7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전북에서 2개소가 선정돼 어촌마을의 경쟁력있는 잠재자원 발굴 및 주민 주도의 맞춤형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으로 어촌마을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유도에 수산물 양육, 선별, 경매, 저장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수산물 위판장을 신축하고, 내년부터는 이 위판장에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매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고군산군도 관광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산물 소비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갯벌 자원을 테마화해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염생식물 이식 및 조경, 탐방로 개설 등 염생식물을 활용한 갯벌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함께 갯벌 생태계 복원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촌특화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발전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풍요로운 어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촌관광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도·전북테크노파크, R&D연계 지원사업 추진 박차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과 시장 검증 제작, 제품공정개선을 지원하는 R&D연계 기술애로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4월, 6월 3차례의 공고를 통해 6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선정 평균경쟁률이 4:1에 이르는 등 영세 중소기업들의 수혜 희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여 추가로 1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R&D연계 기술애로해소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들은 제품의 경쟁력과 사업화를 통해 빠르게 지원 당해연도에 사업성과를 도출하거나, 늦어도 2~3년 안에 매출의 직접적인 증가를 얻기에 도내 영세 중소기업에 인기있는 R&D지원 사업 중의 하나이다.

작년 사업비 14억(국비 7억, 도비 7억)을 지원 60개 기업중 27개 기업이 아이템이 조기에 사업화에 성공해 현재까지 34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다른 R&D사업에 비해 신청접수 등 절차가 간단하고, 3개월간의 짧은 사업기간으로 산업현장에서 제품화를 신속하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사업의 장점이다.

이러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신청 절차 편의성으로 인해 남원,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 지원사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농촌소재 영세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늘어가고 있으며, 2014년에는 36개 기업을 지원했던 사업범위가 2015년 53개 기업, 2016년 60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0개 기업지원에서 추가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근 3년간 지원범위가 두배로 증가했다.

전병순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전북 지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인 시제품, 시장검형제작과 공정 개선 지원을 통하여 매출과 신규 고용의 창출성장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진성 기자

농업인안전보험으로 효도하세요

월 2만원대 상품으로 유족급여금 최대 1억2000만원

전북도가 다양한 작물의 수확철을 맞아 점차 야외 영농활동 증가와 태풍발생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2016년에는 7만 9,993명이 가입해 2015년 대비 4,397명이 증가했지만, 도내 농업인 10명 중 4명만 가입한 상태다.

시군별 가입인원은 고창군이 9,725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고, 그 다음이 완주군 8,426명, 무주군 8,327명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군산 1,538명, 진안군 3,413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전체 9,527명의 농업인 중 8,327명이 가입해 10명중 9명꼴로 보험에 들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군산시의 가입률은 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의 유형은 4가지 종류가 있으며, 90%이상 농업인이 가입하는 경우 본 I형의 경우 10만8,500원 중 75%를 보조해 줌에 따라 농업인은 나머지 25%인 2만7,1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유족급여금은 최고 보장수준을 1,000만원을 높인 1억2,000만원으로 인상했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계약에 통해 장례비 100만원도 보장토록 개선했다.

또한,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을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보장까지 보험 혜택을 넓혔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비탈길, 고령화 등 농업환경이 열악한 만큼,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부모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선물한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경제현안간담회 실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최중구(왼쪽 두번째부터) 금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왕궁 잔여축사 매입

전국 최대 한센인 정착촌이자 축산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왕궁 축사가 크게 줄어들어 수질과 악취가 대폭 개선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7년 들어 왕궁 정착농원 내 축사 2만4㎡를 추가 매입한 결과, 현재 축사 매입 면적이 축구장 76개 규모인 54만㎡로 증가했다. 이는 매입대상 축사 전체 75만2,000㎡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왕궁 축산밀집지역은 현재 지난 2010년 대비 수질 94%, 악취 76%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2017년 잔여축사매입·철거를 위한 예산 200억원(현원 153, 후폐업 47)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능가 매도를 적극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